

해외업계토픽

중국에 눈독들여 美·유럽, 항공기 제작사들 투자계획 놓고

美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사 등 대형 항공기제작사들은 中國이 2010년도까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항공기 보유대수를 크게 늘릴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적극적인 시장공략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미 30여개의 대·소형 항공사를 거느리고 있는 中國은 앞으로 20년안에 전세계 항공교통량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차지하는 몫을 지금의 16%에서 26%로 대폭 늘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세계항공기제작업계의 쌍두마차인 보잉사와 에어버스 인더스트리는 2010년도까지 총 9백억달러를 투자, 1천2백대의 여객기를 도입하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을 겨냥해 시장선점을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작년 한해 동안 중국항공사들에 46대의 여객기를 공급한 보잉사는 2010년도까지 총규모 4백억달러에 달하는 8백대의 항공기를 중국시장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이벌인 에어버스 인더스트리도 같은 기간중에 모두 6백대의 제트여객기를 중국에 팔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다.

中國항공산업 발전계획안 공개 2000년까지 5~7개 연구센터 설립

중국은 최근 대규모 해외 차관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영세한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안을 마련, 공개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紙 차이나 데일리가 발행하는 비즈니스 위클리가 보도했다.

위클리는 국영 중국항공공업총공사(AVIC)의 장안종 副總經理의 말을 인용,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2000년까지 5~7개의 대규모 실험 및 연구센터와 함께 첨단항공산업 그룹 3~5개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 부총리는 이어 항공분야의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인민폐 기준으로 약 40억원(4억7천만달러) 규모의 과학 및 기술을 판매, 8억원의 세전 수입과 5천만달러의 수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홍바오 AVIC 총경리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차관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올해부터 2000년까지 매년 일본정부로부터 차관 1억달러씩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이 자금은 일본 기술 및 장비, 제품 구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일본으로부터 약 7억달러 상당의 소

프트웨어를 비롯해 장비, 주요 부품 등을 수입해왔다.

장 총경리는 이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항공관련 상품을 중국에 수출해온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국내 항공분야에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발전기금 확보를 위해 차관 도입과는 별도로 해외시장에서 AVIC 계열사주식을 발행하는 한편 AVIC를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하는 대담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잉737機 방향타등에 문제점 美紙 자동차조종장치등 고장발견

항공사들은 지난 74년 이래 보잉 737機의 방향타장치에 수십건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했으며 이 중에는 항공기의 방향이 잘못되게 할 부분의 고장도 포함되고 있다고 시애틀 타임스紙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들이 연방항공국(FAA)에 제출된 20년간의 항공사 보고를 검토한 결과 737機의 방향타부분, 자동차조종장치 및 항공기의 비행을 조절하는 기타 부분이 관련된 일련의 고장이 있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20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항공기가 예정에 없는 비상착륙을 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해외업계토픽

이에 대해 보잉社 당국자들은 FAA의 문서에 열거된 사건들이 "부당한 보고"라면서 보고된 사항이 입증된 일이 없으며 방향타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사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방향타 고장은 지난 9월 8일 피츠버그 근처에서 발생, 1백32명의 사망자를 낸 US에어 소속 제트機의 추락사고 원인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데 美운수안전위원회(NTSB) 당국은 피츠버그 추락사고에 관한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싱가포르항공 보잉機 2대 인수키로

싱가포르항공(SIA)은 9월 23일 수일내 B747-400 메가톱과 메가아크 등 보잉機 2대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SIA는 B747-400 메가톱 26개와 B747-400 메가아크 2대를 각각 보유케 된다.

SI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밖에 도 B747-400 기종 21대와 B747-400 화물기 3대 등 24대를 주문해 놓고 있으며 이들은 앞으로 8년에 걸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SIA는 관광시장이 부진하지만 다양한 시장에서 성장 및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며 94년 6월의 항공기 52대 주문을 취소하거나 인도를 연기하지도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2대의 보잉기 인도로 SIA의 항공기는 B747 여객기 39대, B747 화물기 5대, B737 화물기 1대, 에어버스 20대 등 총 65대이다.

이들 항공기들의 평균 사용기간은 61개월로 SIA는 항공기 연령이 가장 짧은 대형 항공사의 하나다.

총 16억\$ 판매 성공 영국 항공우주소 폐막 경기회복 조짐으로 관측

지난 9월 5일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된 94판버러 국제항공우주 전시회가 세계항공우주산업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영국 판버러에서 개막된 이번 국제항공우주전시회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6백20개사가 참가, 2년전 92판버러전시회의 6백40개사에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당초 예상수준을 크게 상회, 전시회 주최측이 2차례에 걸쳐 전시회장 면적을 확장하는등 세계항공업계의 큰 관심을 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항공우주업계가 이번 전시회에 이처럼 기대 이상의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은 그동안 대대적인 합병과 리스트럭처링등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생산효율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민간항공기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제품수요가 회복되고 있는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차세대전투기 2008년까지 개발

日방위청·업계 技術축적
공동협력

일본 방위청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등은 1천억엔(약 8천억원)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 기술 축적을 목적으로 實證機를 2008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新聞이 보도했다.

이 실증기는 상대방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스텔스 성능과 빛을 이용한 플라트 바이 라이트 제어기능을 갖추므로써 항공자위대의 현재 주력전투기 F15를 상회하는 기체를 갖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韓國취항 항공사 확정

「東方항공사」등
11월초 영업개시 전망

중국정부는 올해안에 개설될 한국과의 항공노선에 취항할 항공사를 확정, 발표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국 민항총국 국제항공노선 평가심의위원회는 서울-북경, 서울-청도노선을 중국국제항공공사에 배정했다.

또 서울-상해노선은 중국 동방항공사에, 서울-대련 및 서울-심양노선은 중국 북방항공사에 각각 배정했다.

중국정부의 이번 한·중 노선 항공사 배정은 올들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지난 7월말 현재 연인원 34만명에 달하는 등 이 노선이

해외업계토픽

중국항공사들에 의해 황금노선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취해진 것으로 중국측의 빠른 행보가 주목된다.

초대형 여객기 개발

850명 탑승...첨단시설 구비
에어버스 세부계획
전격 공개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컨소시엄인 에어버스는 최대 탑승인원 8백 50명 규모의 2층짜리 장거리 여객기 제작을 위한 세부 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4개 엔진이 장착된 이 초대형 여객기는 개발비만도 약 80억달러가 투입돼 건강센터와 라운지, 사무실 등 첨단 서비스시설등을 갖출 예정이다며 1대당 판매가는 2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에어버스는 미래 여객기 「A3XX」의 윤곽을 공개함으로써

최소한 홍보분야에선 경쟁사인 미국의 보잉社보다 한발 앞서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관심 끌고 있다.

P & W 엔진 채택

싱가포르, 차세대
전투기용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싱가포르의 차세대전투기로 선정된 F-16 C/D의 동력장치로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의 F100-PW-229 성능향상 엔진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투기 엔진사업의 계약규모는 미화2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1차주문분인 25대의 F100-PW-229 엔진 외에 옵션주문으로 25대의 엔진 추가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도시기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프랫 앤 휘트니의 관용엔진사업 담당 존 벨러구어(John P. Balaguer) 사장은 "싱가포르 정부가 엔진으로 프랫 앤 휘트니 엔진을 선정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선정은 프랫 앤 휘트니 엔진과 프랫 앤 휘트니의 고객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미국의 전투기로는 F-16, F/A-18 및 F-15 등이 있는데, F-16 전투기에는 프랫 앤 휘트니(P&W)의 F100 계열엔진이나 제너럴 일렉트릭(GE)의 F110계열 엔진이 장착가능하며, F/A-18 전투기에는 GE의 F404 엔진만이 장착가능하다. 현재 전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F-16 전투기의 약 70%에 프랫 앤 휘트니 F100 계열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전세계에 배치된 모든 F-15 전투기에도 프랫 앤 휘트니 F100 계열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과의 유대를 위하여 다음 분야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될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야 :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한 기술, 경제등의 논설
유용한 흥미기사, 체험담, 의견등 200자원고지 30장 이내
- ◎현장체험 : 감상 수필 200자원고지 20장 이내
- ◎접수마감 : 매월 말일 도착분을 다음달에 게재
- ◎보낼 곳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증권감독원빌딩 16층)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편집실